1970년대 제주문학에 나타난 제주적인 문학작품 고찰

-『濟州文學』誌를 중심으로-

강 영 기*

차 례

Ⅰ. 서론
Ⅱ. 1970년대 제주문학의 흐름
Ⅲ 『濟州文學』誌 분석
Ⅳ. 결론

Ⅰ. 서론

제주 지역에서 현대 문학의 시작된 이래로 문학협회가 주도되어 본격적인 문인활동이 시작된 시기는 1970년대이다. 그렇기 때문에 1970년대부터 제주 문학사에서 본격적인 현대 문학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 시기에만 등단한 작가가 11명[1]이라는 숫자는 그 이전 시기의 문인

* 제주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

1) 1970년대 등단한 문인과 작품은 다음과 같다.
시인 경우 한기팔「원경」(심상, 1975. 6), 김용해「산조」(한국일보, 1976. 1), 문충성「제주바다」(문학과 지성, 1977. 5), 오용수「화병」(현대문학, 1977. 6), 강통원「무적」(시문학, 1977. 10), 문영종「물빛아이」(월간문학, 1978. 3)가 있으며, 시조에서는 정인수「삼다도」(한국문학, 1974. 3)와 이용상「이어도 처녀」(시조문학, 1976. 9)가 있다. 소설인 경우는 현기영「아버지」(동아일보, 1975. 1)가 있으며 평론에는 송상일「한국적인 것의 순환적 이해」(중앙일보, 1976. 1), 김병택「시인의 현실과 자유」(현대문학, 1978. 7)가 있다. [김영화,「제주문학 80년」『변방인의 세계』(제주대출판부, 2000), pp. 28~29 참조.].

등단 수[2]보다는 단순히 비교하면 많다는 점도 있지만, 한국 문협 제주도 지부가 재결속되고 그에 따른 기관지인 『濟州文學』誌가 창간된 점만 보아도 이 시기는 제주 문학사의 전개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또한 1950~60년대 제주 문학을 소위 '동인지의 시대'라 한다면 1970년대는 제주 문학에서 본격적인 문학 단체의 주도로 문학 활동이 전개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제주 지역 현대문학사에서 1970년대 문인들의 등단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있는 것이 『濟州文學』誌 라면 『濟州文學』誌에 대한 분석은 필연적으로 필요하며, 이러한 분석은 제주 문학을 연구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자료가 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1970년대 제주 문학을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해 가장 기초자료인 제주 문인 협회에서 발간한 기관지인 『濟州文學』誌를 1972년 창간호부터 1979년 제8호까지 발간된 작품을 토대로 제주적인 문학 작품[3]을 분석하려 한다. 이런 이유는 『濟州文學』誌에 실린 작품 중에서 제주적인 문학작품이 지닌 가치를 평가하는 토대가 될 뿐만 아니라, 당시 『濟州文學』誌에 실린 작품들 모두가 작품성이 뛰어난 작품이 아니며, 이를 규명할 수 있는 변별적인 장치가 바로 제주 문학이 추구하는 제주적인 문학의 특성과 연관되기 때문이다. 또한 제주 문학의 근대성[4]을 논의하기 위한 전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기도 하다.

---

2) 1950~60년대에 등단한 사람의 수는 모두 11명이다. 시에는 김대현, 김종원, 양중해, 김광협, 김용길 등이 있으며, 소설에는 최현식, 강금종, 오성찬 등이 있다. 또한 평론에는 박철희, 김영화, 김시태 등이다.

3) 제주 문학의 특성에는 제주적인 문학의 특성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김영화는 제주 문학의 특성을 제주 문학과 다른 지역의 문학을 변별되게 구분하고 있는데 그 요소로 언어, 정서, 이야기, 소재 등을 들고 있다.(김영화, 위의 책, p. 16.) 필자 역시 제주 문학 속에는 제주적인 문학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제주 문학이라 한다면 '제주'다운 문학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제주'적인 것을 소재로 제주인의 삶과 정신을 형상화한 문학을 제주적인 문학으로 보고 싶다. 즉 제주 문학을 제주에서 생산된 또는 제주를 소재로 한 포괄성 있는 상위 개념이라 하면 제주적인 문학은 제주 문학 속에 놓여져 있는 하위 개념 중의 하나이다.

Ⅱ. 1970년대 제주 문학의 흐름

한국사회는 1970년대에 급격한 산업화의 과정으로 인한 사회 변동이 일어난다. 이러한 사회 변동은 산업체제의 확립과 도시의 확대, 대중 문화의 확산을 통해 새로운 한국사회의 변모양상을 마련한다. 하지만 산업화의 영향은 도시 노동계층의 성장과 불합리한 삶의 조건에 대한 반발, 농촌의 소외와 지역간의 격차에 따른 갈등, 산업 시설의 확대와 공해문제 등 새로운 사회문제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사회문제는 한국문학에도 그 영향이 나타난다. 이 시기 한국 문학은 한국 사회변화와 그 갈등 양상을 문학의 영역에서 반영한다. 이런 일련의 한국 문학의 흐름은 지역 문학의 하나인 제주 문학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그것은 제주 문학에서도 당시 한국 문학이 지닌 산업화의 영향을 받은 작품 또는 인간의 내면 세계를 그려내는 작품 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1970년대 제주 문학의 흐름 중 중요한 하나는 바로 제주적인 문학이 추구된다는 점이다. 당시 등단한 사람들이 대부분의 작품들이 제주를 소재로 한 작품들이었다[5]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또한 현기영의 작품 「순이 삼촌」은 소설 주제의식의 측면에서 볼 수 있는 사회적 관심의 확대를 통해 4·3의 문제를 문학에 끌어들이고 있다. 한편 산업화로 인해 붕괴는 공동체의 삶을 그린 작품으로는 오성찬의 「흐르는 고향」(1973)이 있다. 평론 역시 본격적인 제주 문학의 한 갈래로 자리를 잡기 시작한다. 송상일의 「한국적인 것의 순환적 이해」(중앙일보, 1976)와 김병택의 「시인의 현실과 자유」(현대문학, 1978)는 한국 현대 비평의 흐름에 부합되는 작품이 제주 지역 문인들에도 나타나고 있는 실증적 자료이다.

---

4) 김병택, 「근대성 담론과 제주 문학의 근대성」『한국 문학과 풍토』(새미, 2002), pp. 22~25.

5) 이 시기 제주를 소재로 등단한 작가의 작품을 살펴보면 정인수 「삼다도」(한국문학, 1974), 이용상 「이어도 처녀」(시조문학, 1976), 문충성 「제주 바다」(문학과 지성, 1977), 강통원 「무적」(시문학, 1977) 등을 들 수 있다.

Ⅲ. 『濟州文學』誌 분석

『濟州文學』 창간호에 나타나는 제주 문인협회의 회원은 모두 38명이었다. 이들은 시, 소설, 평론, 수필, 희곡 시나리오 등 전영역에 걸쳐 관심을 보인다. 하지만 이들 모두가 등단 제도를 통해 문단에 등장한 것은 아니었다. 당시 문인 협회의 회원 자격은 '문학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6]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에 의하면 문인이 아니라 문학을 전공하는 사람도 회원자격이 되었기 때문에 1970년대 제주 지역 문학이 지닌 문학 생산자의 한계를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제주 지역 문인들의 노력과 제주 문협 회원들이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에 들어 각 장르에 걸쳐 등단하여 본격적인 문인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은 그 만큼 『濟州文學』誌의 영향을 입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濟州文學』誌가 제주 지역 문학인들의 창작 작품과 문학 생산자로써의 임무를 한층 더 성숙하게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제주 지역 현대문학사에서 1970년대 문인들의 등단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濟州文學』誌라면 『濟州文學』誌에 대한 분석은 필연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濟州文學』誌 전체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도 언급했듯 『濟州文學』誌에 나타나는 '제주'적인 것을 소재로 제주인의 삶과 정신을 형상화한 문학을 다루려고 한다.

1. 『濟州文學』 創刊號

『濟州文學』 創刊號는 1972년 12월 25일에 제11회 한라문화제를 기념하기 위해 발간되었다. 그 발간 과정의 우여곡절[7]속에서 제주 문학은 비로소 문학단체 주도의 문학활동이 시작된다. 『濟州文學』 創刊號에는 시(번

6) 한국문협 제주도지회, 『濟州文學』 창간호(1972), p. 117.

역시 포함) 11편, 소설 5편, 수필 3편, 평론 3편 등이 수록[8]되어 있다.

시에서 제주를 소재로 제주적인 문학을 추구하고 있는 작품은 강통원의 「濟州日記」와 고영기의 「해녀의 겨울」이다. 물론 박성원의 「서귀포 작은 하늘에」가 있지만 이 작품은 제목에서만 서귀포라는 지명을 차용하고 있을 뿐 내용이나 소재적인 면에서는 제주적인 문학과는 거리가 있는 작품이다. 다음은 제주적인 문학을 추구한 작품에 해당하는 예이다.

> 하늘의 숨결로 짠 하이연 코우트를 입고,
> 오늘도 제주의 가슴에 등불을 다는 한라산.
>
> 순결과 열정의 시화가 걸렸던 나무가지엔 잎이 지고,
>
> 산이 추운 산새들, 노루들,
> 눈 내린 횡단로 주변을,

---

7) 1970년대초 해체 상태에 있던 제주문협이 재 결속된 것은 1972년 제11회 한라문화제 행사를 앞둔 8월 30일이었다. 20여 명이 칠성로 천호다실에서 회동, 한국문인협회 제주도지부 설치 안을 가결하는 한편 정관 재정, 신규회원 확정, 주요사업계획 등을 수립한다. (…중략…) 당시 도·시·군의 보조금만으로는 행사비의 절대치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라, 방명록을 들고 도내 외 독지가들을 찾아다니며 구걸행각을 벌여서 행사비 충당에 급급했으며, 그런 가운데 행사비의 10%에 해당하는 30만원(당시 한라문화제 총행사비 3백12만 3천3백원)을 '제11회 한라문화제 기념문비' 발간비 조건으로 문협에 지원하게 된 것이 『제주문학』 창간의 단초가 되었던 것이다. [정인수, 「'제주문학'의 창간의 배경」, 제주문인협회, 『제주문학』 제 37집(2002), pp. 63~64.].

8) 수록된 작품은 다음과 같다.
① 시 장르에는 강통원 「濟州日記」, 강갑길 「어느날 밤의 歷史」, 고영기 「海女의 겨울」, 김양수 「少女頌」, 김용길 「가을은 가다 말고」, 김영환 「정오의 환상」, 박성원 「西歸浦 작은 하늘에」, 오용수 「三冬詞」, 정인수 「裸木」, 현춘식 「魂詞」가 있고 말라르메의 시를 번역한 문충성 「바다의 微風」이 있다. ② 소설 장르에는 박수일 「솔내」, 오경훈 「第三의 運命」, 오성찬 「아파트의 破約」, 현길언 「등애」, 홍순만 「八五四高地」가 있다. ③ 평론 장르에는 김시태 「朴木月의 濟州詩篇」, 김영화 「濟州文學 序說」, 송상일 「技術로서의 視點」이 있다. ④ 수필 장르에는 강군황 「後輩들을 아끼는 마음」, 김순자 「어설픈 季節」, 정순희 「선생의 월남치마」가 있다.

억새풀 차거운 목장을,
내려온다, 내려온다, 바닷가 양지로 내려들 온다.

……(중 략)……

저기 뜰 앞에 부서지는, 호우머의 시 같은,
아니, 저기 용머리에 바이런의 시구처럼 부서지는,
아니, 제주 사람들의 한처럼 가득히 밀려오는 파도.

영원한 고전으로
가슴에 와 부딪치는 파도소리, 파도소리, 원시의 율동.

아, 나는 너를 번역할 수 없다.

-「濟州日記」에서

강통원의 「濟州日記」는 제주의 겨울 서경과 파도 소리의 역동성을 통해 제주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그 속에서 시인은 제주의 자연을 번역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그 자연은 하늘이 만든 '하이연 코우트'를 입은 한라산이다. 눈 내린 한라산의 모습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산새, 노루, 그리고 횡단도로와 억새풀은 겨울 한라산의 풍경이면서 제주의 자연을 이루는 요소이다. 이러한 자연은 바닷가 양지로 모든 것을 내려오게 만든다. 그것은 호우머의 시나 바이런의 시구처럼 번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고전처럼 원시의 율동이 된다. 그것은 파도이다. 「제주일기」에 나오는 파도소리는 제주인의 한의 소리이다. 그 속에는 이어도의 아픈 전설이 담겨져 있으며, 또한 제주인의 살아가는 숨비소리가 담겨져 있다. 그래서 파도 소리는 영원한 고전처럼 시인의 가슴에 와 닿고, 원시의 율동처럼 자연스럽게 보인다. 이렇게 자연의 모습을 서경적으로 그리면서 그 속에서 살아가는 제주민의 한을 담은 작품은 고영기의 「해녀의 겨울」에서도 계속된다.

바다 소리는 모여 쉬는
돌 비탈에 억새 꽃은 피어
고개젓는
한 겨울의 물질.

노를 저으면
한 발 두 발 재어 가는
어린날의 자루는 녹쓸어 삐걱이고
던져진 물결의 갈기는
다른 갈기를 뺀치며
미릿내의 골짜기에
서슬짓지만

별무리 사이로
물구나무 서서 캐는
좇겨 온 고향의 꽃들은
진주 및 나래 파닥이며
저승의 산정을 넘는
저 바람가마귀 떼.

이여 이엿
이여도 살라.

-「해녀의 겨울」에서

고영기의 「해녀의 겨울」에는 한이 서려 있다. 그것은 평생을 물질로 생업을 살아가는 해녀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시간이 흐름으로 인해 생겨난 한이다. 이 속에서 제주의 자연은 '바다 소리 모여 쉬는 돌 비탈에 핀 억새꽃이 고개 젓는 한 겨울'로 묘사된다. 여기서 한 겨울은 추운 계절의 의미와 현실의 차다라는 인간의 심리를 포괄적으로 드러낸 시어이다.

한편 이 시에 나오는 별무리라는 시어는 바다 속에 살아가는 여러 생물들이다. 해녀는 바다 속에서 이 생물들을 물구나무서서 캐낸다. 그래서 좇겨 온 고향의 꽃이라는 구절은 해녀의 물질을 의미한다. 시인은 해녀를

저승의 정상을 넘는 저 바람까마귀 떼로 묘사한다. 이런 이유는 항상 목숨을 걸고 하는 힘든 일과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해녀의 삶의 곧 제주민의 삶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람가마귀가 주는 죽음에 대한 이미지와 이여도가 연결되어 죽어서나 갈 수 있는 지상낙원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해녀의 겨울」에 나타나고 있는 한의 모습이며, 제주민들이 지닌 한이기도 하다.

創刊號에 게재된 소설 작품들은 모두 인간의 삶이나 현실의 모순 등을 다룸으로써 한국 소설의 흐름과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다. 박수일은 「솔내」에서 좌우 이데올로기 갈등과 마을의 안녕을 바라는 손노인의 행동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려는 공동체 의식을 그리고 있으며, 오경훈은 「제3의 운명」에서 물질 만능주의에 살아가는 가장의 모습과 다시 옛날의 화목한 가정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통해 현대인의 경제적으로 겪는 이중성을 그려내고 있다. 한편 오성찬은 「아파트의 파약」을 통해 계약 결혼이라는 새로운 세대의 세태를 통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아가는 남자와 여자를 그려내고 있다. 현길언은 「등애(蜚蝱)」에서 일본인 교사인 씨마쓰 선생의 행동을 통해 식민지 조선인의 민족의식을 자각하는 과정을 그려내고 있다. 또한 홍순만은 「팔오사고지」를 통해 6·25전쟁으로 형은 인민군으로 동생인 국군으로 서로 총부리를 겨누어야 하는 가족 간의 비극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들 작품들은 제주적인 소재를 갖고 제주민의 갈등을 그려낸다기보다는 당대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보편적인 사람들의 사고와 갈등을 1970년대 한국 현대문학에서 나타나는 동일한 맥락에서 보편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평론에서 김시태는 「朴木月의 濟州詩篇」에서 한국시와 지역주의의 제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는 이 글에서 朴木月의 濟州詩篇를 분석하면서 그가 제주도의 자연을 그의 시에 소재 또는 주제로서 많이 도입하고 있다는 점, 둘째 제주도의 자연을 시적 대상으로서 취급할 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데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내면적 드라마를 묘사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서 동원하고 있다는 점, 朴木月의 濟州詩篇이 자연에 대한 한 도

시인의 새로운 해석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김시태는 이를 통해 朴木月의 濟州詩篇은 주목할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의 시편들은 그의 문학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또 하나의 새로운 열쇠를 제공해 주고 있으며 그의 시가 그의 출생지를 시의 대상으로 삼고 있을 때보다도 제주도와 같은 낯선 곳을 대상으로 삼을 때 오히려 그의 문학적인 체취를 더욱 강력하게 발산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이를 통해 한 사람의 시인이 하나의 낯선 지방과 조용히 정신적인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지극히 바람직한 일로 여기고 있다.

김영화는 「濟州文學 序說」을 통해 지역 문학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는 이 글에서 제주 문학에 대해 정의하고 한다. 그것은 제주도의 것을 소재로 해서, 제주도민의 생활감정을 여실하게 그리면서도 작품으로서의 문학적 향기와 가치가 높은 작품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제주 문학에서 작가의 역할로서 제주도민의 꿈과 이상과 생활감정을 그린 작품으로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아일랜드의 문예부흥을 예로 들면서, 지역 문학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아일랜드의 문예부흥이 구비문학의 부흥을 통해 영문학 일부를 차지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제주적인 소재의 재발견, 제주도 방언의 적절한 구사, 제주도 민요 특유의 리듬 발견과 현대시에의 적절한 도입, 그리고 창작방법의 새로운 발견과 제주도민 특유의 정신의 새로운 해석에 의한 창작 등을 통해 제주문학의 꽃을 피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의 이런 주장은 제주 문학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과 제주적인 문학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정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글은 의의가 있다.

『濟州文學』創刊號에 게재된 시와 소설의 작품들은 대부분 당시 한국 문단이 지녔던 작가들의 고민을 대등하게 문학으로 표현하고 있다. 시인 경우 일정정도 제주적인 문학이 나타나고 있지만 소설인 경우는 당대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보편적인 사람들의 사고와 갈등을 1970년대 한국 현대문학에서 나타나는 동일한 맥락에서 보편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하지만 평론은 지역 문학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진 양상

이다. 『濟州文學』 創刊號에 실린 평론의 내용은 앞으로 제주 문학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논의 내용이다. 그러므로 創刊號에서 이루어진 제주 문학의 자세와 정신에 대한 논의는 지금까지 제주 문학의 발전방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2. 『濟州文學』 第2號

『濟州文學』 第2號는 1973년 11월 15일 발간되었다. 이 책에 수록된 작품[9]은 시 7편, 소설 5편, 평론 2편, 수필 4편, 초대 작품으로 시 3편과 자료로서 편집부에서 기술한 제주 문학 20년이 있다.

시인 경우 대부분의 작품들이 創刊號와 마찬가지로 작가 자신의 감정을 시로 형상화하고 있다. 강통원은 「幼年頌」에서 어린 아이를 청자로 두고 모든 일을 간단하게 처리하는 세태를 이야기하고 있다. 고영기는 「射擊」에서 한낮 천둥 소리를 들으면서 느낀 감정을 시로 형상화하고 있다. 또한 김용길은 「바람(3)」을 통해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환자의 마음을 시로 표현하고 있다. 오용수는 「장미」에서 장미를 대상으로 이국적 낭만주의에 대한 묘사를 시도하고 있다. 정인수는 「說話」에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상황을 설정하여 현재를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설화임을 강조하고 있다. 『濟州文學』 第2號에 게재된 시들은 대부분 모더니즘적 요소와

9) 수록된 작품은 다음과 같다.
① 시 장르에 해당하는 작품은 강통원 「幼年頌」, 고영기 「射擊」, 박성원 「한 잎에 비친 西歸浦」, 오용수 「薔薇」, 정인수 「說話」, 조응방 「深夜의 散策」, 알프래드 드 바니의 작품을 번역한 문충성 「이리의 죽음」이 있다. ② 소설 장르에 해당하는 작품은 박수일 「芝那」, 오성찬 「돌하루방」, 이강숙 「돈버는 슬픔」, 현길언 「건달게」, 홍순만 「이발관의 여자」가 있다. ③ 평론 장르에 해당하는 작품은 김시태 「시의식의 分裂」, 김영화 「草創期 小說의 樣相」이 있다. ④ 수필 장르에 해당하는 작품은 김영돈 「桂鎔默 先生」, 이기정 「九月의 노래」, 정영택 「敎壇雜記」, 현용준 「文學片想」이 있다. 한편 자료로서 편집부에서 기술한 「제주문학 20년」과 초대작품으로 문덕수 「詩人」, 김종원 「幼年散調」, 김광협 「女子의 幸福」이 수록되어 있다.

낭만주의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작가의 감정을 시로 형상화해내고 있다. 이런 모습은 당시 한국 현대시의 한 유형과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시들 중 박성원의 「한 잎에 비친 서귀포」는 앞에 제시된 시들과 같은 맥락을 지니고 있지만, 서귀포를 소재로 한다는 점에서 소재적 측면에서 제주적인 문학이다.

한 잎새에 잔을 기우리는
팽과리 듯이
펑펑 쏟아지는 파돗길을 달려온
짐승스러운 서귀포.

기저귀도 채지 않은 손수건은
햇살을 가꾸는
귤밭의 아우성.
…(중 략)…
쥐어 뜯고싶던 넋두린데
귤잎이 재물에 맺는
맺는 폭포수로 솟구칠 때,
푸른 껍질을
한겹 한겹 날리는 바다.

-「한 잎에 비친 西歸浦」에서

이 시는 서귀포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그런데 시인이 생각하는 서귀포는 짐승스러움 그 자체이다. 이 시에서 사용된 짐승스럽다는 도시화되지 않은 원시공간으로서의 서귀포를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서귀포의 모든 것들은 자연스럽다. 이런 자연미가 돋보이는 서귀포를 귤 껍질이 한겹 한 겹 벗겨지듯 휘날리는 푸른 바다 위에 우뚝 선 모습으로 형상화해내고, 어린 생명마냥 귤밭의 귤들은 기저귀도 차지 않은 채 햇살 받아 아우성 거리는 듯한 풍경을 만들어낸다. 이런 풍경은 원시 생명력의 공간으로서 서귀포를 여기는 시인의 생각이다. 따라서 이 시는 서귀포, 서귀포 바다, 귤밭, 폭포를 통해 서귀포의 자연스러움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한편 『濟州文學』 第2號에 나타나는 소설은 대부분 한국 현대문학의 흐름에 부합되는 작품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눈여겨볼 작품은 오성찬의 「돌하르방」이다. 그의 작품은 제주적인 문학에 해당하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박수일의 「芝那」도 제주도를 소재로 다루고 있지만 '추자도→제주시→서울'로 이어지는 공간 이동 속에서 나타나는 지명이 단순한 소재로만 작용할 뿐 주제나 제주민의 정서라기보다는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닌 보편적인 정서바탕으로 이루지 못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

한편 오성찬은 「돌하르방」에서 조선시대 착취당하는 제주민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방어사(防禦使)는 왜구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강노인에게 남문 서문 동문에 돌하르방을 세워놓을 것을 명령한다.

② 늦봄부터 여름 한철 목이 타게 가물었고, 이로 인해 좁씨 한톨 고구마 한뿌리 심어보지 못하고 여름을 보냈다. 거기다가 여름이 숙어지면서 괴질이 돌아 사람을 몰살하기 시작하고 관가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

③ 왜구들이 침입하여 약탈을 하나 관가에서는 변명만 할 뿐 더욱 악날하게 세금을 받아내기만 한다.

④ 방어사가 온 후 역사는 더욱 많아졌고 역사 도중 정물집 흘어멍이 투신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⑤ 노인은 돌하르방을 만들면서 만드는 이유에 대한 고민을 하고, 방어사는 연일 술집에서 토호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여자들과 희롱을 한다.

⑥ 왜구들이 쳐들어오고 방어사는 아무런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무서워서 도망을 친다.

⑦ 왜구가 수탈하여 돌아간 후 방어사는 목장을 하는 제주민에게 곤장을 치면서 송아지가 불어난 것을 신고하지 안은 죄를 물어 소 스무마리를 착취한다.

⑧ 강노인은 돌하루방의 얼굴을 일그러지게 만들면서 절대 권력에 대한 회의를 느낀다.

이상의 구조를 통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점은 수탈 당하는 제주민의 반복적 모습이다. 그 수탈의 주된 원인은 중앙에서 내려온 탐관오리의 착

취였다. 그 착취가 얼마나 심했으면 신구간이라는 말이 나왔는가를 생각하면 당시 제주민의 생활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강노인의 삶의 모습을 통해 작가가 보여주는 것은 탐관오리의 착취와 왜구의 수탈을 이겨내는 제주민의 모습이다. 그 모습은 제주를 지켜주는 돌하루방의 모습과 흡사하다. 한편 이 소설에는 제주민요들이 차용된다. 그 내용은 탐관오리의 횡포를 다루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런 점만 보아도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의 살던 시대의 제주민들과 중아에서 내려온 탐관오리의 관계를 짐작하게 한다.

작가는 「돌하루방」을 통해 제주의 상징인 돌하루방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야기한다. 그 속에서 수탈당하는 제주민의 역사를 다룸으로써 제주민의 지닌 한과 그 해소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濟州文學』第2號에는 제주현대 문학 20년을 정리한 「濟州文學 20年」이 게재되어 있다. 이 자료는 1970년대 이전까지의 제주문학을 개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는 점, 제주문단에 형성된 동인지들에 대한 언급은 제주 문학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이다.

『濟州文學』第2號는 제주 현대 문학 20년을 정리한 내용인 「濟州文學 20年」과 오성찬의 「돌하르방」등 제주적인 문학 요소를 토대한 문학 작품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작품은 한국 문학이라는 큰 줄기의 흐름과 부합되는 작품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문학의 보편성 추구라는 문학의 특성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

3. 『濟州文學』第3號

『濟州文學』第3號는 1974년 10월 25일에 발행되었다. 여기에 수록된 작품[10]은 시 13편과 번역시 1편, 소설 5편, 수필 3편, 평론 3편이다. 또한 시에서 문학상 특선 작품으로 정인수 작품 4개를 실고 있는 점도 눈여겨

10) 수록된 작품은 다음과 같다. ① 시인 경우 고영기 「서귀포에서」, 김양수 「異狀運

볼 만하다. 그의 문학상 당선은 1970년대 제주 문학이 중앙 문단에서 어느 정도 자기 자리를 찾고 있음을 의미한다.

『濟州文學』第3號에 나타나는 시의 특징은 제주적인 문학을 추구하는 작품이 지난호에 비해 많다는 점이다. 고영기의 「서귀포에서」, 박성원의 「서귀포 돌챙이의 일기소」, 정인수의 「성산포사모곡」, 「해녀초」, 현춘식의 「청비바리」 등 5편이 수록되었다. 하지만 고영기와 박성원의 경우 서귀포를 시의 제목으로 사용할 뿐 제주적인 문학 작품으로 보기에는 다소 거리가 있다. 하지만 정인수의 작품이나 현춘식의 작품은 제주적인 문학작품으로 볼만하다.

사랑이 날 낳으시듯
부챗살 편 아침 놀,

아픔의 빛깔이란
애초부터 눈 부신 것.

일출봉 허리에 슬리는
숱한 어둠의 泡沫들…

-「성산포사모곡」에서

이 시는 제목에 나타나 듯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노래이다. 그런데 시인이 그리워하는 어머니는 "아픔"이나 "어둠"의 시어를 통해 이미 세상에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런 현실을 시인은 아침 일출봉에서 떠오르

行」, 김용길 「안개 속에서」, 문충성 「눈물」, 박성원 「서귀포 돌챙이의 日記抄」, 박호길 「調律」, 오용수 「雨水」, 정인수 「城山浦思母曲」, 「九九谷散調」, 「踏靑」, 「歸家」, 「海女抄」, 현춘식 「청비바리」가 있고 강통원의 번역시 「疾走」가 있다. ② 소설인 경우 고시홍 「麥嶺」, 오경훈 「牛島」, 오성찬 「移轉略史」, 정영택 「奇聲의 意味」, 현길언 「避暑記」가 있다. ③ 수필에는 김영돈 「50年代 濟州文壇 漫步(Ⅰ)」, 박수일 「나무와의 對話」, 홍순만 「모든 것은 스러졌지만」 이 있다. ④ 평론에는 김시태 「韓國 近代詩의 二律背反」, 김영화 「觀照者의 눈」, 송상일 「偶然의 구조」가 있다.

는 아침 햇살을 받으며 인식한다. 아침해가 부챗살 펴듯 돋아나고 그 빛이 일출봉을 감싸고 돌 때 어둠과 함께 밀려오고 밀려가는 파도의 움직임은 시상 전개의 배경이 된다. 이 속에서 시인은 "아픔의 빛깔이란 애초부터 눈부신 것"이라는 역설적 표현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다음 작품은 해녀의 삶의 모습을 통해 일상 세계를 비판하고 있다.

해녀는
물속에서만 눈을 뜨고 입을 연다.

남 몰래 옷을 벗어
모든 것을 내 맡겨도,

오히려 못 믿을 것은
휘파람 저 너머
세상

-「海女抄」에서

이 시는 도시화되고 비인간화되는 현실의 생활을 해녀의 물질 모습을 통해 비판하고 있다. 이 시에서 해녀는 물 속에서만 눈을 뜨고 입을 연다. 그래서 해녀는 뭍 세상에서는 눈을 뜰 수 없다. 그러므로 해녀는 현실 세계를 볼 수 없다. 또한 현실 세계에서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아무말도 하지 못한다. 해녀가 이런 행동을 취한 이유는 휘파람 저 너머에 존재하는 세상의 못 믿음 때문이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제주도 개발은 도시화, 산업화의 영향을 받아 제주도만 지니고 있던 순수함의 많은 부분을 잃게 했다 이런 개발의 모순을 시인은 해녀를 비판하고 있다.

한편 현춘식은 「청비바리」를 통해 해녀의 삶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자맥질로 하늘차며 살라했다
봄별 살 속 핀 속잎의 어린 빛 내려
이어도 얼비친 물보래에서

한숨 모아 태왁빗던 삼성 따님네
갈매기 눈망울에 벙근 박꽃이
돌담각에 배롱배롱 정으로 버네

-「海女少」에서

청비바리는 처녀의 제주도 방언이다. 어린 시절부터 물질을 하며 살아야 했던 제주민의 삶은 처녀가 되어서도 마찬가지였다. 이어도가 살짝 보이는 바다 속에서 작업을 하는 해녀의 모습에서 시인은 해녀의 삶을 "자맥질로 하늘 차며 살라했다"라는 시구를 통해 그들의 삶이 숙명적임을 이야기한다. 한편 시인은 이 시에서 제주도적인 요소를 살리기 위해 "배롱 배롱"이란 제주 방언을 사용함으로써 리듬감과 정겨움을 시속에 담고 있다.

한편 소설에서 오경훈은 「우도」를 통해 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 소설은 일본 여인 아이꼬의 회상을 통해 전개된다. 아이꼬가 우도에 살게된 사연은 일본에서 만난 남편을 찾아오면서 이다. 그리고 10년을 우도에서 남편과 살아가다가 남편은 남영호 침몰로 사망하게 된다. 그리고 아이꼬는 4살난 아들 훈과 함께 살아간다.

이 소설에서 작가는 일본 여인의 삶의 모습을 통해 당시 우도 사람들이 생활을 모습을 전해준다. 그 삶은 생선을 사다가 성산포로 가서 다시 되파는 일이거나, 잠수를 통해 해산물을 채취하여 살아가는 일, 고구마 농사를 짓는 일등이다. 이렇게 억척스럽게 살아가는 모습은 섬생활의 고달픔이며, 섬사람들만의 삶의 모습이다. 또한 작가는 남영호 침몰로 인해 어렵게 살아가는 살아있는 자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서 생활력있게 살아가는 제주민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濟州文學』第3號에 나타나는 시의 특징은 제주적인 문학을 추구하는 작품이 지난호에 비해 많이 게재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소설에서도 「우도」를 통해 섬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은 제주문단에서 제주적인 소재를 바탕으로 문학 활동이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4. 『濟州文學』 第4號

『濟州文學』 第4號는 1975년 10월 1일 발행되었다. 수록된 작품[11]은 시 9편, 소설 4편, 평론 4편, 희곡 1편, 수필 7편이다.

『濟州文學』 第4號에서는 제주적인 문학 작품보다는 한국 문학의 흐름에 부합하는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하지만 소설과 평론에서 제주적인 문학을 이야기하는 작품이 한 편씩 있다.

소설에서 현길언은 「傷痕」을 통해 이데올로기 문제로 인해 벌어진 제주의 이야기와 살아남은 자의 상처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 소설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① 말젯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5·16도로를 넘어오다가 아버지의 권유로 산천단에 내리게 된다.

② 산천단 길을 따라 관음사쪽으로 걸어가면서 4·3사건의 거의 끝날 무렵의 이야기를 듣는다.

③ 아버지는 농업학교로 교사로 있다가 좌우익의 대립하자 경찰이 된다. 이에 삼촌은 불만을 품고 보다 자유로운 곳으로 가겠다며 집을 나간다.

④ 할아버지와 나는 길을 동네를 걷다가 총에 맞아 죽은 젊은 사람을 발견한다. 그들은 공비로 오인되어 죽은 사람들이다.

⑤ 마을은 소개되고 집은 남성리로 이사오게 된다. 하지만 공비의 침입으로 할머니는 죽게 된다.

⑥ 아버지의 부대는 관음사에 공비가 있다는 정보를 믿고 관음사로 진압 작정에 갔다가 매복에 걸려 29명의 목숨을 잃는다.

---

11) 수록된 작품은 다음과 같다. ① 시 작품은 고영기 「雷鳥」, 김양수 「日常의 記錄」, 김용길 「봄빛」, 「달밤」, 이영걸 「하늘과 땅 사이에」, 정인수 「情景」, 조응방 「城」, 한기팔 「꽃씨」, 현춘식 「손금」이 있다. ② 소설에는 오경훈 「무명교사」, 오성찬 「신부타령」, 이강숙 「하얀꽃」, 현길언 「傷痕」이 있다. ③ 평론에는 강통원 「PROSODY의 展開(上)」, 김영화 「小說史의 擴大와 衝擊」, 송상일 「濟州文學 스케치」, 양순필 「抵抗期의 時調」가 있다. ④ 수필은 김순택 「바닷가에서」, 김영돈 「오똘또기」, 박승일 「촌놈을 발견해 낸 눈」, 오용수 「선생며느리」, 이기형 「立小便」, 정순희 「되풀이해야 하는 질투」, 정영택 「술이야기」, 가 이다. ⑤ 희곡으로 현기영 「凍死者」가 있다.

⑦ 아버지의 회상이 끝나고 아버지는 나에게 일본에서 어떤 공짜도 얻어먹지 말고 몸조심을 당부한다.

이 소설은 1950년 겨울부터 1951년 1월까지 한 가족의 삶을 토대로 전개된다. 이 속에서 작가는 산으로 올라간 삼촌과 경찰인 아버지를 통해 당시 제주민의 지녔던 이데올로기의 갈등을 그려내고 있다. 이런 모습은 이 소설이 단순한 허구가 아니라 제주의 역사를 뒷받침하여 기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아버지는 공비 진압시 공비의 죽창에 죽어간 할머니와 산에 있는 삼촌을 생각한다. 그에게 있어서 어머니를 죽인 원수와 그 원수들과 함께 생활하는 동생에 대한 생각은 역사의 아이러니이다. 하지만 이런 역사의 아이러니가 한 가족의 집안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주민 전체가 겪어야하는 아이러니임을 작가는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1970년대 한국 사회가 모든 것을 금기시 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작가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4·3사건 당시 제주도 분위기를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결말에 아버지의 대화를 인용하여 4·3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고 상흔으로 남아 있음을 작가는 이야기하고 있다.

평론에서 송상일은 「濟州文學 스케치」를 통해 최현식, 오성찬, 김광협의 작품세계를 조명하고 있다. 그는 최현식의 「夾竹桃」를 향토성과 섹스가 원색적으로 채색된 작품으로 보고 있으며, 「사소설」을 제주문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구축해가고 있는 작품으로 평하고 있다. 또한 오성찬의 「별을 따려는 사람들」과 「땅위에 쓰다」를 평하면서 이 두 작품에서 동시에 발견되는 것은 여성에 대한 작가의 구도적 엄숙함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제주문학의 가능성으로 제주 문학과 제주의 정직한 사회학은 동일한 기원을 가졌다고 보면서 오성찬의 작품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는 김광협의 시세계를 평하면서 김광협의 시 세계는 상황이 절망적일수록 고향의 농도는 짙어지고 고향의 실재성은 더욱 희석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그러기 때문에 김광협의 시세계에서 제주는 실재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그리운 최후의 위안되고 있다고 평하고 있다. 그의 제주 스케

치는 당시 한국 문단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작가의 작품을 제주문학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濟州文學』 第4號의 특징은 비록 한 편씩이지만 제주를 소재로 다룬 문학 작품이 생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송상일의 평론은 제주지역 작가들의 작품 세계를 제주작가의 시각에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5. 『濟州文學』 第5號

『濟州文學』 第5號는 1976년 10월 5일 발행되었다. 수록된 작품[12]은 시 18편, 소설 7편, 평론 4편, 수필 4편이다.

『濟州文學』 第5號에 나타나는 제주적인 시는 고영기 「억새꽃」, 김양수 「共鳴-牛島記」, 문충성 「西歸浦에서(Ⅰ)-素菴선생에게」, 박성원 「이어도⑦」, 현춘식 「오돌또기」, 김용해 「濟州바다⑫」, 「散調⑲」가 있다. 하지만 고역기의 「억새꽃」은 "억새꽃", "산", "파도" 등의 시어만이 나타날 뿐 제주민의 정서가 배제되어 있다. 또한 문충성의 「西歸浦에서(Ⅰ)-素菴선생에게」는 소암 현중화 선생과의 대화 내용을 시로 옮겨 놓았다는 점에서 제주적인 문학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하지만 현춘식의 「오돌또기」와 김용해의 「散調⑲」는 제주적인 작품으로 볼 수 있다.

---

12) 수록된 작품은 다음과 같다. ① 시인 경우 강통원 「서울에서」, 고영기 「억새꽃」, 김양수 「共鳴-牛島記」, 김용길 「씨알」, 「풀꽃」, 문충성 「西歸浦에서 (Ⅰ)-素菴선생에게」, 박성원 「이어도⑦」, 이용상 「가을入門」, 정인수 「가을」, 조응방 「어느 여인의 이야기-梧桐島에서」, 한기팔 「美術敎室」, 현춘식 「오돌또기」, 김용해 「濟州바다⑫」, 「散調⑱」, 「散調⑲」, 김진자 「1976年의 旅行」, 「幕 뒤에서」가 있다. ② 소설에는 송재찬 「금섬」, 고시롱 「傳染性 貧血症」, 오경훈 「無名敎師」, 오성찬 「돌아라, 새살」, 정영택 「鄕愁」, 이강숙 「추석 전날밤」, 현길언 「棄權을 해요」가 있다. ③ 평론에는 송상일 「絶望의 女體, 一久遠의 이미지」, 김시태 「歷史의 傷處—咸亨洙論」, 김영화 「20年代 愛情의 風俗-羅稻香論」, 양순필 「新小說에 나타난 敎育的 問題」가 있다. ④ 수필에는 김순자 「無題」, 정순희 「외사촌 복자」, 홍순만 「'보말' 잡던 '탑바리'」, 김순택 「해질무렵」이 있다.

제주 바다에 불이 일어서
찢긴 날개 파닥이며 섬이 나른다
섬사람의 핏줄마다 멍울진다
무너지는 물결의 벼랑 사이를
바람 같은 인연 따라 헤매 돌던 울음도
돌이질로 꽃잎처럼 사위어 간다
돌아 오리,
한라산을 흔들던 바람이 자고
혼혼히 물 건너가 휘파람이여.

- 「오돌또기」에서

제주민은 생활을 위해 물질을 했다. 그 속에서 고달픔은 제주민의 정서를 슬픔으로 이끈다. 현춘식의 「오돌또기」 역시 이런 슬픔의 정서가 표출된다. 그의 작품은 민요 '오돌또기'가 주는 한라산이 바다로 뻗어내린 그 수련한 제주도의 자연과 싱그러움과는 반대로 슬픔의 정서와 다시 삶의 터전인 바다로 들어가야 하는 삶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섬사람의 핏줄마다 멍울진다"는 구절은 한의 정서를 형상화한것이고, "한라산을 흔들던 바람이 자고 혼혼히 물 건너가 휘파람이여"는 모진 자연 환경 속에서도 삶을 위해 살아가는 제주민의 모습을 그려내는 것이다. 이 속에서 제주민은 "꽃잎처럼 사위어 간다"는 구절처럼 자기를 희생해가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처럼 「오돌또기」에는 모진 제주의 자연 환경과 그 환경 속에서도 삶과 생활을 영위해야만 하는 제주민의 삶의 모습, 그리고 그 모습 속에 드리워진 슬픔의 정서가 잘 드리워져 있다. 한편 김용해의 「散調⑲」에서도 이런 '슬픔', '울음'의 정서가 나타난다.

서귀포 앞바다 썰물 같은 울음을
누가 돌아다 보겠느냐
병든 바다에 비가 나리고
산마다 죽음의 떼
강물은 어둠을 더 어둡게 하고

풀잎마다 마른 기침소리
누가 알겠느냐
아아, 서서 우는 여자여

-「散調⑲」에서

「散調⑲」에는 "죽음, 어둠, 병"등 어두운 이미지가 나타난다. 그리고 이런 이미지들은 서서 우는 여자에 포괄된다. 여기서 서서 우는 여자를 제주민으로 본다면, 제주민이 지닌 정서 중 하나인 슬픔의 정서를 추출할 수 있다.

濟州島가 지닌 역사는 슬픔의 역사이다. 그 누가 알아주지 않는 삶의 역사에서 제주민은 나름대로의 힘으로 살아왔다. 그래서 "산마다 죽음의 떼"로 가득하고, "강물은 어둠을 더 어둡게" 하는 역사 속에서도 서귀포 앞바다 썰물처럼 그렇게 자연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삶은 바로 제주민의 지닌 강인함이다.

『濟州文學』第5號에 수록된 제주적인 시 작품에는 제주의 정서를 담아내고 그것을 문학으로 형상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소설과 평론에서 제주적인 문학 작품이 생산되지 않았다는 점은 『濟州文學』第5號까지도 작가들의 중앙 문단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6. 『濟州文學』第6號

『濟州文學』第6號는 1977년 10월 5일 발행되었다. 수록된 작품[13]은 시

13) 수록된 작품은 다음과 같다. ① 시인 경우 강통원「思鄕記」, 문충성「돌하르방」, 「겨울白鹿潭」, 「비눗방울」, 「어느 詩人에게」, 「새」, 고영기「고향 노을」, 「산과 달」, 김양수「江南에서」, 김용길「꽃뱀」, 김종두「나비」, 이용상「六代祖가 심었다는 뒷뜰 유자나무」, 김진자「음식점에서」, 정인수「가을 숲에서」, 한기팔「豫感」, 현춘식「散調」가 있다. ② 소설인 경우는 고시룡「비대발괄」, 오경훈「加減算人生」, 오성찬「生堂神」, 현길언「憑依」가 있다. ③ 평론에는 송상일「韓國 文學史의 한 圖式」, 양순필「春園時調攷」가 있다. ④ 수필은 김순택「오솔길」, 이기형「苦樂有感」, 정순희「빗속에서」, 정영택「이 여름을」이 있다.

16편, 소설 4편, 평론 2편과 상호데상이란 이름의 인상비평 4편, 수필 4편이다.

『濟州文學』第6號에 나타나는 제주를 소재로 다루고 있는 시는 문충성의 「돌하르방」과 「겨울 백록담」, 현춘식의 「散調」를 들 수 있다.

> 제주의 거리에 하나 그득 넘쳐 나는 것
> 갔다왔다 잡동사니들이 몰려다닙니다.
> 관덕정 한 모퉁이 돌하르방은 탐라천년
> 인고의 눈 커다랗게 뜨고 제주의
> 대낮을 지킵니다. 바다도
> 하늘도 칭얼대던 막내 딸년까지 잠 속에
> 빠져 허덕일 때 내 머리맡에서
> 돌하루방은 불면의 지혜를 흔듭니다.
>
> -「돌하르방」에서

이 시에 나오는 돌하르방은 제주의 수호신이다. 그래서 돌하루방은 잡동사니들이 몰려다니는 제주를 지킨다. 관광 산업의 발전은 제주로 많은 사람들을 오게 만들었다. 이런 관광객들이 만든 새로운 문화는 제주의 전통 문화를 위협하게 만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돌하르방은 제주의 수호신으로 제주민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친다. 그것은 "바다도 하늘도 칭얼대던 막내 딸도"로 표현되는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삶의 모습이다. 시인은 관광 산업의 발전과 퇴색해가는 제주의 모습에서 돌하르방을 통해 제주를 제주답게 보존하고 싶은 욕망을 시속에 담고 있다. 한편 그는 「겨울 백록담」을 통해 자연 속에서 느끼는 자연의 모습과 인간의 본성을 형상화하고 있다.

> 겨울철 백록담에 올라 본 일이 있느냐, 한 여름
> 서북벽을 타고 내리던 메아리조차 없다.
> 숨 시는 것이라곤 나 하나, 아니 저승의 바람도 있다.
> 바람은 살을 베어 넘길 듯
> 창검을 갈고

이승과 저승 사이 메아리야 깊숙이
동면의 깊이에 빠졌느냐.
벽해, 철쭉, 고채목, 설루초……꿈구는 내 숲이여
일어들 나거라 일어 나거라, 어서
일어나서 저 무후의 하늘이 하얗게 허물어지는 것을 보아라.
내 가슴이 무너져 가는 소리에 너희들 가슴을 열어라.
오늘 백록담에 와서 탐라가 열리던
처음 분화구 바윗덩이를 헐떡이는 갈증 솔리 듣나니
영하로 얼어 붙은 발길에 길은 열리지만
진종일 걸어도 백록 한 마리 보이지 않는다.

-「겨울 백록담」 전문

이 시에 나오는 겨울 백록담은 시인의 현실과 자연을 연결해주는 통로이다. 한라산이라는 대자연은 시인이 꿈꾸는 "벽해, 철쭉, 고채목, 설루초렁렁렁" 등으로 이루어진 자연 공간이다. 이 속에서 시인은 인적 없는 겨울 백록담에 올라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승과 저승의 삶이 경계를 넘어 자연과 일치되고 있다. 아무도 없는 백록담에서 존재하는 것이라고는 시인과 차가운 바람뿐이지만 시인은 열림을 느끼고 있다. 그것은 인간인 나와 자연인 너를 함축하는 세상 모든 것들에 대한 열림이다. 이런 열림은 시인이 백록담에 와서 느끼는 탐라의 열림이 되고, 분화구 바윗덩이들이 들려주는 제주의 역사가 된다. 하지만 시인은 "진종일 걸어도 백록 한 마리 보이지 않는다"는 시구절을 통해 제주의 역사가 더 이상 신화적 요소를 겸비한 역사가 아니라 제주민의 인식하는 현실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다.

한편 현춘식은 「산조」를 통해 해녀의 고달픈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

해녀는 죽음을 허리에 차고 산다.
가슴에 이는 불을 꺼 주는 이도 없이
날마다 저승을 나명 들명,
수평선을 태우는 노래만을
다음 딸의 핏줄 속에 대를 잇는다.

-「散調」에서

해녀는 항상 죽음을 무릅쓰고 살아간다. 그만큼 바다속 일이 힘들고 고달프기 때문이다. 이 시에서도 해녀의 힘들고 고달픈 삶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그것은 해녀가 바다 속에서 혼자 작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가슴에 이는 불을 꺼 주는 이도 없이"라는 표현을 통해 나타난다. 또한 "죽음"이나 "저승"이 주는 시어의 의미가 외연적 의미 그대로 해녀의 삶을 나타내고 있는 것도 그러하다. 하지만 해녀의 힘들고 고달픈 삶을 보여주는 것은 해녀라는 직업을 다음 세대에도 물려 줄 수밖에 없는 현실적 숙명이 해녀를 더욱 힘들게 하고, 제주민을 더욱 힘들게 한다. 이런 이유로 인해 해녀는 허리에 전복이나 소라 등의 해산물을 차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차고 산다고 시인은 표현하고 있다.

『濟州文學』第6號에 나타나는 제주적인 소설에는 오성찬의 「生堂神」을 들 수 있다. 그는 넓은드르당에 얽힌 사연을 통해 당시 제주민들이 지닌 토속적 신앙관과 현실적 신앙관을 논픽션으로 그려내고 있다. 이 소설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① 제주시내 N동에 속칭 넓은드르에 〈폭낭알당〉이 있었다. 이 당의 신주는 송씨 할머니로 15세미만 아이들의 몸에 부스럼을 나게 하기도 하고 고쳐주기도 한다는 것이다. 신방의 말로는 송씨 할머니가 제사상을 받기 전 마을의 강장의가 먼저 상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

② 그 이유는 강장의의 처 정의방은 손녀딸의 머리 부스럼을 치료하기 위해 정성스럽게 몸과 마음을 다지고 음식을 차려 〈폭낭알당〉에서 송할머니를 위한 제사를 지내려고 한다.

③ 하지만 강장의는 미신이라며 반대한다. 정의방은 남편 몰래 제사 준비를 하고 제사를 위해 올래 앞으로 나갈 때 남편과 마주치고 남편은 제사를 못하게 끔 음식을 모두 먹어버린다.

④ 이에 격분한 정의방은 격분하면서 남편이 송할머니의 저주를 받은다고 말한다. 이후 강장의는 부인의 말대로 엉덩이에 종기가 생겨 고생한다. 마을 사람들은 이 사건을 통해 더욱 〈폭낭알당〉의 신력을 믿게 된다.

⑤ 강장의는 어느 날 〈폭낭알당〉으로 가서 자신의 엉덩이에 돋아난 종기를 불로 태우고, 이어 폭낭을 태워버린다.

⑥ 그 이후 마을 사람들은 어린 나무를 심고 정성을 다하나 송할머니의

점쾌는 나타나지 않는다. 신방이 그 이유를 동네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강장의에게 먼저 음식 상을 차려주고 송할머니의 상을 나중에 차려야 신험한 점쾌가 나온다고 이야기 한다.

⑦ 이때부터 마을의 제사나 가정의 기원을 올릴 때 강장의의 밥부터 차렸다고 한다.

이 소설은 제주민들이 신당에 대한 정성을 작가가 보여줌으로써 제주의 신앙을 작품화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즉, 한국 문학에서 나타나는 현실적 신앙관과 토속적 신앙과의 대립을 제주도 차원에서 해석하고 풀어내고 있다는 점이 그러하다. 작가는 이 소설의 끝 부분에서 살아있는 사람인 강장의가 신보다 먼저 음식을 받게 그려냄으로써 현실적 신앙관의 승리를 인정하고 있다. 이런 점은 1970년대 제주민들의 지닌 신앙관 역시 현실적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이 소설의 특징으로 등장 인물의 대화가 제주 방언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완전한 제주 방언의 사용이 아닌 부분적 제주 방언의 어설픈 사용은 작품의 리얼리티를 떨어뜨리고 있다.

『濟州文學』第6號의 특징 중 하나는 상호데상이라는 코너를 마련하여 제주 지역작가의 인상을 간략하게 그린다는 점이다. 오성찬은 현길언에 대한 인상으로 참대 같은 인상, 그리고 의지로 표현하고 있으며, 현길언은 오성찬을 먹돌같은 인상에 푸근함이 베어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한편 문충성은 정영택을 선량한 지식인의 인간상으로 보고 있으며, 정영택은 문충성을 시론을 갖춘 시인의 정열로 표현하고 있다. 상호데상이란 코너의 의도에 맞게 제주 지역 작가끼리 서로에 대한 느낌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좀더 문학적인 요소 즉 작가의 작품세계를 글 속에 투영한다거나 제주 문학과 관련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가의 인상을 기술했다면 보다 의미 있는 글이 될 수 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濟州文學』第6號에 나타나는 특징은 이 시기에 들어와서 비로소 제주적인 문학이 영위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한국 문학의 흐름에 부합되는 작품이 함께 나타나고 있지만 제주적인 소재를 토대로 작가의 사상과 감

정을 문학 작품에 담아내고 있는 점은 『濟州文學』 第6號가 지닌 의의이면서 특징이다.

7. 『濟州文學』 第7號

『濟州文學』 第7號는 1978년 10월 5일 발행되었다. 수록된 작품[14]은 시 16편, 소설 5편, 평론 2편, 수필 6편이다. 이 중 제주를 소재로 한 시 작품은 김용해의 「중문에서」와 문충성의 「수평선Ⅱ」를 들 수 있다.

김용해는 「중문에서」를 통해 인간의 순수성 추구를 그려내고 있다.

> 천제연 가서
> 물이 저희끼리 흐르는 소리를 들으며 날 저물어라.
> 돔박새 울음도 고여 흐르는 곳
> 때로 우리 어린 시절도 들으며
> 세상을 아주 까마득하게 내 버리고
> 나도 물이 되어 흐르더라
> ……(중 략)……
> 친구여
> 우리 마음 어디가 아프다 하리오
> 괴롬되는 눈물 소리도 흐르고
> 목견뎌 우는 울음 소리도 흐르고

14) 수록된 작품은 다음과 같다. ① 시인 경우 강통원 「無題」, 고영기 「휘파람새 간 뒤」, 김양수 「幼年期」, 김영환 「山」, 김용길 「落木」, 김용해 「중문에서」, 「누이에게」, 문충성 「禾北序詩」, 「수평선Ⅱ」, 이용상 「겨울바다」, 정인수 「平床에 누워」, 한기팔 「東편 벌끝은」, 현춘식 「火葬」, 문해림 「바람이 부는 洞里」, 「살(肉)의 노래」, 「꿈의 詩」, 「밤비에 젖는 者는」이 수록되었다. ② 소설에는 고시룡 「인육시장」, 오경훈 「約束」, 이강숙 「無醫村 診療記」, 현길언 「다락일기」, 오성찬 「漢拏山」이 있다. ③ 평론에는 김영화 「民族의 受難가 亡國人 意識」, 송상일 「한국기독교와 한국사회」가 있다. ④ 수필에는 김순택 「肥大症의 辯」, 김영돈 「民謠名稱」, 이기형 「節氣」, 조명철 「카나리아의 죽음」, 최현식 「박꽃」, 양순필 「日本紀行」이 있다.

천제연 물소리 되어 흐르는 마음은
흐르고 흘러서 천년이 돼도
마음은 더 아늑하고 여.

-「중문에서」에서

시인에게 천제연의 주는 이미지는 아늑함 그 자체이다. 그래서 시인은 천제연의 물소리되어 영원히 흐르고 싶은 욕망을 시로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이 시으 배경인 천제연은 순수의 공간이 된다. 시인이 천제연에 오기까지의 세상은 "아픔"과 "괴로운 눈물"의 공간이었다. 현실이 주는 번뇌와 괴로움을 치유하는 곳이 천제연이라면 그런 천제연은 시인을 흐르는 물이 되게 만들고, 세상을 아주까마득하게 잊게 만든다. 이런 천제연은 시인에게 아늑한 공간으로 간인되고 있다. 이처럼 제주의 자연은 제주민들에게 순수성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문충성은 「수평선Ⅱ」를 통해 제주민의 가슴속에 지닌 공간의 의미를 보여준다.

수평선을 넘으면 수평선은 또 있다.
제주섬에 태어나서 수평선을 넘어본 사람은 안다.
제주 사람은 어디를 가나 수평선을 벗어나지 못하고 산다.

-「수평선Ⅱ」에서

사면이 바다인 제주에서 태어나 육지로 나가야만 목숨을 보전할 수 있었던 섬사람들의 삶에서 제주민들은 마음 속에 또 하나의 수평선을 안고 살아간다. 그러므로 이 시에 나오는 수평선은 현실 공간의 주는 한계를 의미한다. 제주를 벗어나서 제주를 볼 때 제주를 더욱 구체적으로 보게 되지만 "제주 사람은 어디를 가나 수평선을 벗어나지 못하고 산다."를 통해 시인은 그것의 현실에서 피상적임을 이야기한다. 즉 그것은 현실의 공간이 아닌 이상의 공간까지를 포함한 수평선이며 제주민의 살아가는 방식으로 시인은 여기고 있다.

『濟州文學』第7號에 게재된 소설에서 제주적인 문학 작품으로는 오성

찬의 「한라산」을 들 수 있다. 물론 고시롱의 「인육시장」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의 대화가 제주 방언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과 소설의 배경이 제주라는 점을 들어 제주적인 문학 작품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 소설은 당시 한국사회가 안고 있었던 사회적 문제와 인간 경시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은 한국 문학의 흐름과 동일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오성찬은 중편 「한라산」을 통해 제주적인 소재를 바탕으로 제주의 역사를 이야기한다. 이 소설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1)
① 센오서방은 잃어버린 〈태백상이(소)〉를 찾기 위해 집을 떠난다.
(2)
① 산길을 오르던 센오서방은 〈태백상이〉를 상산에 올리던 일을 생각한다.
② 파종이 끝난 여름날 마을 장정들과 소를 데리고 상산으로 올라간다.
③ 상산에 올라 소들을 방목하고 비를 맞으며 하산한다.
(3)
① 그 후로 몇 일이 지난후 센오서방과 마을 청년 진욱이는 소를 둘러보기 위해 다시 상산으로 오른다.
② 산에서 소들이 잘지내고 있음을 확인한다.
③ 그후로 두 달이 지난후 소를 데려오기 우해 산에 가지만 〈태백상이〉만 찾지 못하고 내려온다.
(4)
① 센오서방은 잃어버린 〈태백상이〉를 찾기 위해 산을 뒤지지만 찾지 못하고 산에서 하루 밤을 지내게 된다.
② 잠을 자려는 순간 4·3사건의 기억을 떠올린다.
③ 4·3 사건 당시 센오서방은 토벌대의 안내인을 맡아 전공을 세운다.
④ 하지만 잡힌 공비들 중에는 처남이 있었고, 처남은 전향을 거부하고 사형을 당한다.
⑤ 처남의 일과 〈태백상이〉의 일을 생각하다 센오서방은 백록담에 오른다.
(5)
① 〈태백상이〉를 찾기 위해 센오서방은 밀림에 들어가고, 관목숲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겨우 길을 찾아 빠져나온다.
(6)
① 〈태백상이〉를 찾던 중 목동들을 만나고 목동들이 부록소를 잡는 것을

도와준다.

② 목동 좌장과 대화를 나누면서 몇 해전 소를 잃어버린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다.

(7)

① 센오서방의 〈태백상이〉 찾기는 동짓달에도 계속되고 교래리 쪽 중산간에서 노인을 만난다.

② 센오서방은 노인과 하루밤을 보내면서 제주를 지배했던 원(몽고)의 만행을 듣는다.

③ 다음날 아침 세상은 온통 눈으로 덮혀있고, 센오서방은 하산을 한다.

(8)

① 그해 제주는 눈이 많이 내렸고 센오서방은 〈태백상이〉기 위해 온동네를 수소문한다.

② 어느 날 밤 센오서방은 〈태백상이〉의 꿈을 꾼다.

③ 꿈에서 깨어나 소피를 보려고 할 대 발자국 소리를 듣는다.

④ 그 발자국 소리는 〈태백상이〉의 소리이다. 〈태백상이〉가 집으로 돌아온 것이다.

이 소설은 한라산을 배경으로 소를 찾아 헤매는 센오서방의 이야기가 중심이 된다. 이 속에서 작가는 원나라의 제주 지배와 4·3으로 인한 이데올로기의 갈등, 그리고 제주민의 살아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당시 제주민은 밭을 일구고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했다. 이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이 소였다. 그러므로 소는 집에서 가장 훌륭한 일꾼이며, 경제적 가치였다. 소를 키우기 위한 공동 방목이나, 소에 낙인을 찍는 과정을 통해 제주민의 공동체 생활이 이 소설에서 나타난다. 그러므로 센오서방의 소를 잃은 것이 한 가정의 일이 아니라, 한 마을의 일이 된다.

한편 이 소설에는 소를 찾는 센오서방의 마음뿐만 아니라 어쩌면 작가는 제주민이 지닌 아픔 역사를 이야기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그것은 바로 원의 지배이다. 원의 지배는 제주민들에게 있어서 착취의 역사이다. 그들은 본래 섬에 살던 사람들을 육지로 내몰았을 뿐만 아니라 원나라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을 데려와 살게 했으며, 여자들을 공출하여 원나라로 데려갔으며, 모시포등을 수탈해갔다. 그뿐만 아니라 2~3만필의 군마를

키우고 조공하게 했다. 또한 고려조정에서 보낸 관리들의 횡포에도 당해야 하는 등 제주민들은 관리들의 횡포와 군인들의 횡포로 피폐한 삶은 살았다. 이런 역사가 중세 제주의 역사라면, 현대에 들어와서 4·3은 제주민들을 아프게 했던 또 하나의 역사이다. 특히 같은 가족들끼리의 이데올로기의 갈등은 더욱 그러하다. 이 소설에서도 토벌군의 안내인의 센오서방과 공비인 처남의 갈등은 한 가정의 문제를 넘어서서 제주민의 모두가 지닌 갈등이다. 이 소설에서 작가는 4·3의 관점을 제주민의 모습에 담지 않고 어느 한 쪽의 이데올로기에 맞춰 그려내고 있는 점은 당시 한국 사회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단면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오성찬의 「한라산」은 센오서방을 통해 제주민들의 삶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으며, 소를 찾는 과정에서 펼쳐지는 한라산 모습의 형상화, 그리고 제주 역사에 대한 문제제기 등은 제주적인 문학 작품으로 그 의의가 있다.

『濟州文學』 第7號에 나타난 제주적인 문학 작품의 특징은 제주민의 삶의 방식을 작품으로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시인 경우 제주라는 소재는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의 공간으로 나타나고 있고, 소설에서는 제주의 가슴 아픈 역사를 문학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8. 『濟州文學』 第8號

『濟州文學』 第8號는 1979년 10월 17일에 발행된다. 수록된 작품[15]은 시 10편, 소설 3편 평론 3편, 수필 3편이다.

---

15) 수록된 작품은 다음과 같다. ① 시인 경우 강통원 「颱風」, 고영기 「먹꽃」, 김양수 「그림자」, 김영환 「길」, 김용길 「春風」, 김용해 「돔박새5」, 문충성 「戀歌8」, 이용상 「因緣」, 정인수 「裸木」, 한기팔 「밤비」이다. ② 소설인 경우 고시롱 「무좀과 곰팡이」, 오성찬 「뿌리등걸」, 현길언 「소문」이 있다. ③ 평론에는 양순필 「濟州流配漢詩小考」, 김시태 「未堂의 濟州島詩」, 김영화 「近代人의 不安과 挫折」이 있다. ④ 수필은 김순택 「文化와 文化의 衝突」, 정영택 「그 훈훈함이」, 조명철 「所望」이 있다.

『濟州文學』 第8號에 수록된 시작품들 중에서 제주를 소재로 다루는 작품으로는 김용해의 「돔박새(5)」와 문충성의 「戀歌8」이다.

냇물 소리도 잔잔한
천제연 가서
돔박새를 만난다.

저물어 산이 그림자 되어
내려와 앉은 물소리에
내 어린날들이 풀어지고
누님 눈물과 만나던
서른해 긴긴 사연도
오늘은 듣기로 작정한 마음으로
돔박새를 만난다.
……(중 략)……
어린 넋들도 만나고
돌아와 흐르는 유년도 만나고
내 살아온 前生
어느 때의 눈물도 만난다.

마침내 내 고향 中文理가
냇물로 되고
이대로 갈 수 없는 세상을
나는 돔박새가 되어 울고 있다.

-「돔박새(5)」에서

이 시에 나오는 돔박새는 작가의 분신이면서 회상의 매개물이다. 시인은 천제연 폭포 주변 어느 동백나무에서 울고 있는 돔박새를 통해 어린 날을 회상한다. 그것은 시인의 유년 시절의 삶의 이야기이며, 한 많은 누님의 사연을 담은 이야기이다. 그래서 시인은 자기가 살아온 서른 해의 긴 이야기를 돔박새의 울음 소리처럼 구슬프게 하고 있다.

이 시의 배경은 시인의 고향인 중문이다. 그 모습은 폭포를 이루는 냇

물이 마을을 따라 흐르고 그 속에서 돔박새 울음 소리가 들리는 자연 그대로의 풍경이다. 하지만 시인의 고향 중문은 1970년대 들어 관광이라는 이름으로 개발되고 변하게 된다. 시인에게 있어 변해버린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돔박새의 울음처럼 시인은 돔박새가 되어 "이대로 갈 수 없는 세상"에다 울고 있다. 그러므로 이 시는 제주 자연의 아름다움과 변해가는 고향의 모습에서 변하지 않으려는 시인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 또한 문충성 역시 「戀歌8」을 통해 제주의 자연을 소재로 시를 형상화하고 있다.

바라만 보다 처음 폭포소리
잠결엔 듯 들려왔을 때 형님 목소리로
들리기도하고 이따금 아슬한 별빛
소리로 들려 오기도 했습니다 폭포는
물소리만 내지르는게 아닙니다
춘하추동 한라산 계곡
잎 피고 잎 지던 험난했던 이야기를
내 귓속 가득 넘쳐나게 합니다.

-「戀歌8」에서

이 시의 부제는 天地淵瀑布圖이다. 시인은 천지연폭포의 그림을 항상 보지만 그 폭포 소리를 듣지 못하다가 어느날 잠결에서 듣게된다. 그리고 그 소리를 통해 시인의 의식을 확장한다. 시인의 귓가에 들린 폭포의 환청은 폭포소리를 폭포소리로 인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슬한 별빛 소리로 들리게도 하고 한라산계곡 잎 피고 지던 험난했던 이야기로 들리게 한다. 즉 시인을 현실에서 자연으로 이끄는 힘으로 폭포소리는 확장된다. 그러므로 폭포소리는 현실의 문제에서 벗어나 내 귓속 가득 넘쳐나게 들리는 것이다.

김용해의 시나 문충성의 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제주의 자연을 소재로 자신의 감정을 담아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제주의 자연을 이용하고 있다.

한편 소설에서 제주적인 문학적 특성을 보여주는 작품은 오성찬의 「뿌리등걸」이다. 그는 이 소설을 통해 대대로 이어온 천직은 바꿀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소설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① 남편은 테위를 타고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고, 아내는 싸리를 꺾어다 삼태기와 구덕을 만드는 일을 가업으로 여기면서 살아간다.
② 이들은 다소의 재산을 모으게 되자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를 달리 갖게 되지만 마을 사람들은 볼보재기 이상의 대우를 해주지 않는다. 아무리 좋은 천으로 옷을 해 입고 거드름을 피워도 알아주는 이가 없었다.
③ 이때 마을을 떠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한다.
④ 그 사건은 훈장 어른이 긴장죽으로 사내의 머리를 치고 볼보재기 주제에 함부로 어른 앞에서 대든다며 꾸중을 준 일이다.
⑤ 이 일이 있은 후 부부는 재산을 파고 아이들과 함께 마을을 떠나면서 아이들에게는 자신과 같은 직업을 남겨주지 않기로 다짐한다.
⑥ 길을 가다가 좋은 사리밭을 보게 되자 아내는 무의식적으로 싸리를 꺾어다가 구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가 남편에게 면박을 받는다. 하지만 남편 역시 면박도중 낚시와 관련된 말을 하게 된다.
⑦ 부부는 피장파장이라면서 길 섶 위에 주저앉는다.

이 소설은 제주의 민담을 기초로 만든 콩트이다. 작가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천직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헛된 것임을 통해 제주민의 직업의식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제목처럼 뿌리등걸로 한 곳에서 뿌리를 두고 정착하여 살아야 함을 강조한다. 이 속에서 옷어른을 공경하지 않으면 안되며, 동네 사람들을 업신여겨서도 안 된다는 교훈적 주제를 다룸으로써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와 그 물음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제주민의 지닌 지혜를 보여주고 있다.

『濟州文學』 第8號에 게재된 평론에서 양순필의 「濟州流配漢詩小考」와 김시태의 「未堂의 濟州島詩」는 제주를 소재로한 외지인의 시각을 다루고 있는 글이다. 양순필의 「濟州流配漢詩小考」에서 유배문학에 대한 개념정리와 제주유배한시에 대한 개관을 하고 있다. 그는 이 글에서 金淨의 시를 절명시를 보면서 자탄을 내용으로 한 한문학상 조선의 楚辭로 평하고

있으며. 광해군의 「在圍籬中吟」은 인륜에 애소한 자신탄의 시적 분위기가 감독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임관용의 磨崖詩는 은둔도피에서 오는 자연에의 몰입을 그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김정희의 「配所輓妻喪」은 부인의 부고를 유배지에서 받은 인간적 비통을 표박하고 있다고 평하고 있다.

김시태는 「未堂의 濟州島詩」를 통해 미당의 초기 시경향을 고찰하고 있다. 그는 이 글에서 미당이 동시기의 다른 시인들과 구분되는 차이점으로 도식적 관념의 유희를 지양하고 삶의 현장을 통해 직접적으로 자기시대를 통찰하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이 점이 동시기에 제작된 그 밖의 많은 저항시나 이데올로기 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미당의 독특한 일면이며 우수성이라 평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미당이 젊은 시절부터 삶에 대한 근원적인 이해의 폭을 넓히고 그 위에 자신의 문학적 방향을 탐색하는 데 필요한 지점들을 이미 초기시의 형성과정을 통해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濟州文學』第8號는 시, 소설, 평론에서 제주적인 문학을 다루고 있다. 시인 경우 제주의 자연을 소재로 자신의 감정을 담아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제주의 자연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과 소설에서 제주 민담을 이용한 작품을 그려내고 있다는 점, 또한 평론에서 외지인의 시각으로 제주를 그려내고 있는 작품을 분석하고 있는 점은 제주적인 문학이 한국 문학에서 하나의 유형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의미한다.

Ⅲ. 결론

1970년대 제주 문학은 제주적인 문학 작품과 한국 현대 문학의 흐름에 부합하는 문학 작품의 공존한다. 작가의 작품 생산 역시 이런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 속에서 1970년대 제주 문학은 당시 한국 문학이 지닌 산

업화의 영향을 받은 작품 또는 인간의 내면 세계를 그려내는 작품들과 함께 제주적인 문학이 추구된다. 이러한 경향은 『濟州文學』誌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하지만 『濟州文學』誌가 지닌 문학사적 의의는 제주지역 작가가 제주에 대한 내용으로 제주를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濟州文學』誌에 작품을 게재한 작가들은 중에서 제주적인 문학을 추구한 작가들은 시에서 강통원, 고영기, 김용해, 문충성, 박성원, 정인수, 현춘식과 소설에서 오경훈, 오성찬, 현길언을 들 수 있다. 또한 평론에서 김시태, 김영화, 송상일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濟州文學』誌에서 제주의 언어를 통해 제주의 자연을 소재로 제주민의 이야기를 문학으로 형상화함으로써 제주민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제주민이 지닌 역사나 아픔들을 사실적으로 그려내지 못하고 있는 점은 작가의 작품생산에서 나타나는 한계이적 역사적 아픔이라 생각한다.

제주도는 한국의 다른 지역과 분명 다른 제주만의 문화와 풍토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제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의식과 정서 역시 다르다. 따라서 제주문학도 다른 지역의 문학과 다른 특성을 지닌다. 그러므로 제주적인 문학은 한국 문학의 흐름에서 제주 문학을 형성하는 기본 토양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 속에서 『濟州文學』誌는 1970년대 제주 문학의 형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1980년대 제주 문학에서 가속화되기 시작한 '등단의 시대'를 준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참고 문헌〉

1. 기본텍스트

제주문인협회. 『濟州文學』 창간호, 1972.

제주문인협회. 『濟州文學』 제2호, 1973.

제주문인협회. 『濟州文學』 제3호, 1974.

제주문인협회. 『濟州文學』 제4호, 1975.

제주문인협회. 『濟州文學』 제5호, 1976.

제주문인협회. 『濟州文學』 제6호, 1977.
제주문인협회. 『濟州文學』 제7호, 1978.
제주문인협회. 『濟州文學』 제8호, 1979.

2. 단행본 및 논문
고시홍. 「제주문단사」. 『濟州文學』 제13호, 1984.
김병택. 「한국 문학과 풍토」. 새미, 2002.
김영화. 「변방인의 세계」.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0.